

평택미한우영농조합이 추천한 오성농장

▲ 오성농장 홍택경 사장

고품질 TMR급여로 소득도 쑥쑥  
“소 키우는게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소가 너무 좋습니다.”

>>> [ 취재 \_ 현시영 ]



▲ 미한우 사료공장. 이곳에서 TMR 사료를 제조하고 있다.

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자식같이 키운 가축을 결국은 도살해야 한다는 것.

오성농장 홍택경 사장 또한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지난 18년동안 소를 키웠다.

“처음엔 정성들여 키운 소를 팔고 나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무뎠어진 했지만 그래도 소 키우는 사람들은 일단 소를 좋아해야죠. 그래야 성적도 잘나오고요.”

장마가 끝날 무렵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에 있는 홍택경 사장의 농장을 찾았다.

다른 농장과 달리 오성농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게 시원함이 느껴지는 넓고 푸른 논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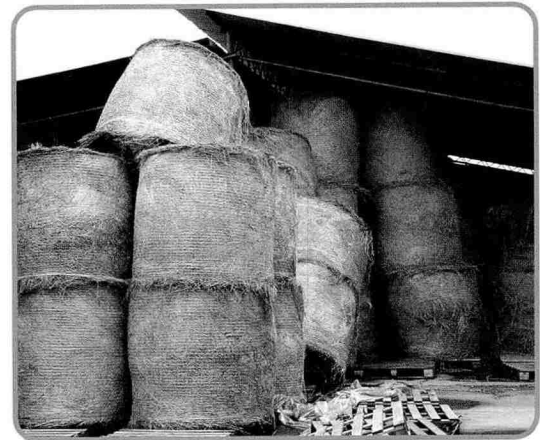
축사부지만 90평에 우사는 모두 3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한우 13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

다. 원래 농사를 지었던 홍택경 사장은 축산은 부업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소를 키웠는데 본격적으로는 12년 전부터 지금 이 자리에 터를 잡고 20두 정도로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욕이 너무 앞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실패를 본 경험도 있죠.”라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보통 1년에 20두 정도를 출하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등급성적은 좋아요. 1등급이 90%이상 나오니까요.”라며 자신있게 말했다.

등급도 좋고 질병 때문에 걱정해본적도 없더니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사양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우사관리만 깨끗하게 잘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는 단순한 대답만 돌아왔다.



▲ 볏짚으로 가득한 창고 안

우사를 살펴보니 보송보송한 왕겨위에 소들이 편안해 보였다.

홍택경 사장은 사실 마을 이장을 8년째 맡고 있다고 한다. 논농사까지 짓다보니 많이 바빠 부인이 세세한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수정일과 출산일, 등급내역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택경 사장은 취재도중 쌍둥이 송아지 두 마리를 가리키며 “암소를 쌍둥이로 본건 처음이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라고 말하며 얼굴에 금방 화색이 들었다.

홍택경 사장의 오성농장은 평택 미한우협동조합에 속해있다. 지금은 평택 미한우사료공장에서 제조하는 TMR사료를 급여하지만, 그 전까진 배합사료와 볏짚만을 급여했다고 한다.

평택 미한우사료공장은 시·도의 지원을 받고 평택에 있는 15개의 농장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걸어 공장을 지었다고 한다. 바로 농장 뒤편으로 사료공장이 보였다.

홍택경 사장은 축산물브랜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택축협에 소속되어 있는 한우농가는 모두 미한우브랜드를 달고 출시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확실히 TMR 사료를 급여한 후부터 번식능력과 육성율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사료포대를 뜯어 사료를 보여주었다. 발효가 잘된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 논농사를 3만평정도 짓고 있는데 볏짚을 직접 자급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1000여평의 밭에 옥수수도 심어서 급여하고 있어요.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지만 확실히 효과가 있죠.”라고 말했다. 홍택경 사장은 소 덕분에 땅을 늘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수입 축산물이 아무리 싼 값으로 들어온다 해도 끝까지 소를 키울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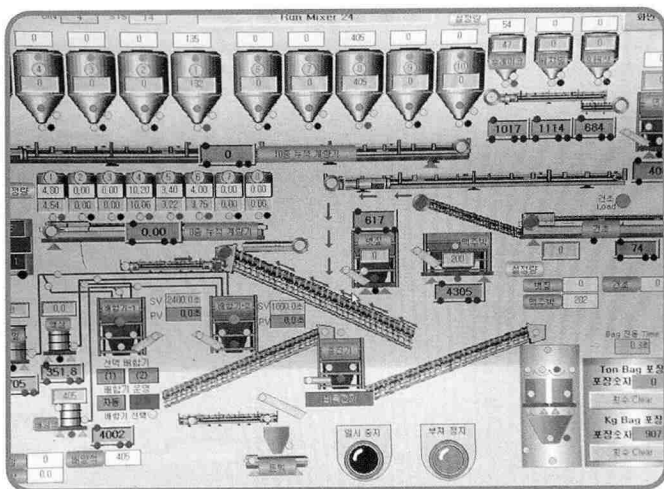
비록 시세차익에 의해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홍 사장은 축산이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 평택 미한우사료



▲ 태어난지 2주정도 된 쌍둥이 암소



▲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전자동 배합시스템

말했다. 소가 너무 좋아 소 없인 못살것 같다고 말하는 흥택경 사장.

누구든 대한민국에 소를 키우는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흥 사장은 앞으로 평택 미한우 브랜드가 더 커지고 인지도가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고기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때문에 우사도 크게 늘리고 두수도 천천히 늘려갈 생각이다.

취재를 마치고 흥택경 사장과 근처에 있는 평택 미한우사료공장을 방문했다. 다른 TMR 공장에 비해 훨씬 위생적이고 큰 규모에 놀라자, 흥택경 사장은 2년전 처음 지을 때도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의 규모였다고 귀뜸해 주었다.

배합은 컴퓨터로 조작하고 있었는데 평택 미한우사료만이 아니라 수 많은 사료들을 주문생산하고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들은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공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눈앞에 펼쳐진 넓은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상쾌했다. 앞으로 평택 미한우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더불어 수입 축산물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취재를 마쳤다. ⑤